

# 17세기의 언약 운동사

(A History of the Covenanting Movement in Scotland)

徐 昌 源

- London Theological Seminary
- Free Church of Scotland College(Dip. Th.)
- Edinburgh University(Th. M.)

한국 교회의 60% 이상이 장로교회이다. 그만큼 장로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교회 밖의 기독교 단체들의 대다수가 장로 교회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말하기를, 장로교회는 참된 신자를 양육하기보다는 장로교인을 만드는 일에 급급해 한다고 한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임을 자랑하는 S교회의 구성 인원을 보면 상당 수가 장로교회에서 성장하였거나 장로교회를 다녀 본 적이 있는 신도들이라는 것이다. 이 사실은 소위 교회 밖의 운동(Para-Church Movement)을 하는 이들의, 장로교회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구나 장로교회가 장로교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많은 장로교인들이 전혀 성질이 다른 교파로 옮기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장로교회가 그 특색을 살리는 바른 교육을 철저히 시키지 못했고, 또 하고 있지도 않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단순히 장로교회 밖의 교파나 특정 교회의 교인 구성 분포를 논하지 않고 현재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도 장로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 생활하는 교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는 더 이상 장로교인을 양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성도로 양육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선뜻 긍정하기가 어렵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장로교회의 장로나 교역자들조차도 본인이 왜 장로이며 장로교회의 목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신학교에서조차도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가 장로교여야만 하며 왜 내가 장로교 목사여야 하는지를 질문하면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대부분이 어려서부터 또는 교회 첫발을 디딘 곳이 장로교회였다는 사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로교 교역자가 된 것이란 대답뿐이다.

더구나 찬송가가 통합이 된 후의 한국 교회는 각 교파의 특색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려는 징검다리를 놓기는 했으나 교파의 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교파의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필자는 장로교회만이라도 특히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추종하는 교단만이라도 우리 자체를 바로 알고 양육하는 작업을 서둘러서 교회의 연합(unity)을 추구하는 동시에 각 교단의 특색을 다양하게 살리는 (diversity)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는다. 교회 연합은 외형적인 획일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배제한 참된 연합은 없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독특한 소리를 내면서도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위력을 한국 교회가 발휘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장로교, 특히 개혁주의의 뿌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고(本稿)에서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 (Scotland)의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자들 (Covenanters)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들은 장로교를 지킨 인물들이며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꽃피웠다. 17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난 언약자들의 활약과 순교는 우리 한국에까지 장로교가 소개된 그 원인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언약자들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및 정치적 배경을 먼저 피력하고자 한다.

## 1.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및 역사적 배경 속에 등장한 언약자들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여파는 스코틀랜드에 개신교 국가를 세웠고, 더 나아가서 국가적 동질감(identity)을 형성하였다. 대륙에서의 종교 개혁이 권세가들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라면,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집권자들을 대항하는 무장한 민중들의 반역을 통해서 성사되었다. 대륙에서의 그같은 종교 개혁의 단행은 절대적 군주의 지위를 향상시켰다. 교황의 절대 권위에 반발로 시작된 종교 개혁은 새로운 절대적 권위가 개신교 국가의 제왕들에게 부과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1603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위 통합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제임스 6세(잉글랜드에서는 1세)가 두 나라의 합병된 왕으로 즉위하면서 모든 법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통치권을 선포하고 나섰다. 소위 왕권 신수설(神受說) 태동이었다.

그와 같은 절대 권한을 휘두르기 위해서 제임스는 두 나라의 통일된 종교 정책을 펴야만 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인이었지만 왕을 교회의 수반으로 간주하고 있는 잉글랜드의 국교인 성공회의 감독 제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왕의 측근들로 의회 감독들을 의회 내에 주둔시켰다. “감독이 없으면 왕도 없다.”란 제임스 6세의 종교 정책은 장로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선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1688년 명예 혁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스코틀랜드에서는 국가와 교회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갈등은 15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왕의 측근이었던 몰튼(Morton) 백작이 교회를 왕의 손아귀에 두려고 감독 제도를 세우고자 했을 때부터 스코틀랜드는 교회와 국가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그때에 존 나스의 후계자인 안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의 저 유명한 “두 왕과 두 왕국”이란 명제가 생긴다. 즉 교회의 영적 권위는 국가의 세속적 권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주장이었다. 교회는 국가를 간섭할 권한이 없고 국가 역시 교회 안에서 어떤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멜빌과 그의 지지자들은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었다. 그들에 의하면 교회는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왕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다. 다만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에게 복종해야 할 것을 교회가 주장한 것이다. 즉 장로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 의하여 군주의 왕권 신수설은 교회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주장 때문에 멜빌은 스코틀랜드에서 추방당했다.

제임스 6세의 그와 같은 종교 정책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을 격분시켰다. 특히 장로교를 폐지하고 성공회식 예배를 강요하려는 왕의 의도가 1618년 Perth에서 제정된 5개 조항<sup>1)</sup>에 노골화되자 장로교인들의 반항은 불길처럼 번져 갔다. 거센 반발에 부딪친 제임스는 그의 정책을 유보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1625년 제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차알스 1세가 왕위에 오른다. 그의 종교 정책은 부친의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오히려 선왕의 정책보다 더 강압적인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의 강압적인 정책은 극단으로 흘러갔고 강한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없애고 성공회를 국교로 삼으려고 강행하였다.

드디어 1637년 켄터베리 대주교인 라우드(Laud)를 중심으로 예배와 교리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예배 의식서를 작성한다. 이것이 소위 “라우드 예식서”이다. 이 예식서는 의회에서나 총회에서 의뢰를 받아 제작한 것이

1) 이 문서의 4개 조항들은 주로 기독교의 절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예를 들면 성탄절과 부활절 행사의 부활과 개인적인 세례식 또한 8세가 되면 서약하는 성공회식 입문식과 개인적인 성찬식 집행 등을 허용하는 것들이었다. 마지막 항목은 성찬식 때 목사가 떡과 잔을 나누어 줄 때 무릎을 꿇고 받아 먹도록 한 것이었다. 이런 행위는 천주교 미사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서 장로교인들을 크게 격분시킨 것이다. 종교 개혁 때 이와 같은 의식적 절차 등 기독교 절기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니라 왕의 단독적인 명령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 내용은 안드류 멜빌의 사상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한 군주와 한 교회만 있을 뿐이다.”란 왕의 구호처럼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폐지하고 성공회 감독 교회를 설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존 낙스의 종교 개혁과 멜빌의 가르침으로 장로교 개혁 신앙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알스 1세의 그와 같은 처사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분노케 하였다.

1637년 6월 23일 라우드.예식서에 따라 장로교의 어머니 교회의 존 낙스의 교회인 성 자일레스(St. Giles) 교회에서 최초로 성공회식 예배가 강요되어 진행될 때 이에 반대하는 회중들(일설에 의하면 한 소녀가 앉아 있는 의자를 집어 던졌다고 한다.)에 의하여 교회는 온통 수라장이 되었고 결국 전국민에게 미치는 폭동으로 번져갔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와 개혁 신학적 교리 문제에 있어서 비성경적이요, 천주교로 돌아가는 반지름길로 여긴 성공회식 예배와 교회 형태로 혁신시키려는 왕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주로 잉글랜드의 감독들과 몇몇 지주들)의 종교 정책을 반발하는 전국민적 항거로 번져간 것이다.

장로교 제도와 신앙을 지지하는 전국민의 성원은 급격히 격상되었던 반면에 왕에 대한 불신임은 날로 깊어 간 것이다. 드디어 1638년 2월 28일에 에딘버러에 있는 그레이 프라이어 교회(Grey Friar Kirk)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지주를 포함한 목사들이 모여 소위 “국가적 언약(The National Covenant)”을 맺는다. 그리고 그 문서에 서명을 하고 어떤 이는 혈서를 쓰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맺은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겠노라고 서명하였다. 이 문서는 여러 개로 복사되어 전국에 살포되었고 순식간에 국민의 전국적인 지지를 얻어낸다. 이에 당황한 왕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철회시키기보다는 온갖 압력과 회유책을 써 국민적 봉기를 제압하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11월에 글라스고(Glasgow)에서 장로교 총회를 열어 지난 2월에 맺은 국가적 언약을 재선포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전국 교회가 기울일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때 주된 안건은 “스코틀랜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란 것이었다. 이때를 가리켜서 역사가들은 소크틀랜드에서 제2의 종교 개혁이 단행된 해로 여긴다. 제1의 종교 개혁이 천주교로부터였고, 제2의 개혁은 성공회로부터의 개혁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항의 의의는 역사학자인 히위슨(Hewison)의 평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로써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를 되찾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을 확실히 했다. 절대 군주권을 주장하는 원칙들이 배격되었으며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포

하였다. 국가적 언약을 맺은 것은 장로교 신앙과 원리가 모두 올바른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다. 반면에 성공회식 감독주의는 배격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그 근거를 둔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에서 그 위치를 다시 확인하였고, 더군다나 교회법에 명시된 일반 성도들의 권한이 입증된 것이다...<sup>2)</sup>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군주에게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한 왕의 권력은 제한된 권력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국가적 언약(The National Cevenant)의 애용은 우선 과거에 왕과 의회, 혹은 교회와 맺은 언약들(특히 종교 정책에 관한 것들)을 서술하였고, 현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속에서 일치시키고 종교와 및 시민의 자유를 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언약에 서명하면서 함께 행동하며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함께 죽을 것이라는 결의를 한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였다. 소위 언약자들(The Covenanters)은 바로 국가적 언약에 서명하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처럼 국민들의 열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왕은 소위 공권력을 투입하여 국민의 저지를 막으려고 하였다. 언약자들을 지지하는 잉글랜드 의회 내의 장로교 지지자들에 의하여 무력 진압이 알려지자 언약자들은 자체 방위력을 구성하여 정부군과 대항하는 전투를 벌인다. 사실 언약자들은 왕을 대항하여 싸우려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왕이 천주교적이며 성공회적 종교 정책을 포기하고 스코틀랜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 것이었다. 이들의 의사하고는 아랑곳 없이 무력으로 쳐들어 오는 차알스 왕의 군대와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언약파의 승리였다. 그러나 왕의 표면적 태도는 수그러졌지만 그의 내심엔 다른 칼을 갈고 있었다. 사실 헌법에 보장된 대로 스코틀랜드의 법과 교회법에 의하여 정당한 왕정 체제를 유지하였더라면 찰알스 1세는 교회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교회와 국가의 처절한 싸움을 막았을 것이다.

한편으로 1641년 잉글랜드에서 시민 전쟁이 발생하자 잉글랜드의 의회는 스코틀랜드에 군사 원조를 요청한다. 언약자들은 두 나라에 장로교를 국교로 하는 종교의 통일 없이는 결코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잉글랜드 의회와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던 끝에 내전에 시달리는 잉글랜드의 합의를 받아낸다. 그래서 1643년에 언약자들의 지도자인 헨더슨(Henderson) 목사가

2) J. K. Hewison, *The Covenanters*, Vol. 1(Glasgow, 1908), p. 316.

초안하고 총회에서 인준한 “거룩한 협약과 언약(The Solemn League and Covenant)”을 체결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시민 협약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약속이 기재된 중요한 협약서였다. 즉 아일랜드에서 천주교를 없애고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성공회를 없애고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국교로 삼는 데 합의한 문서였다. 그리고 언약의 요인들을 수호하는 일을 위하여 서로가 돕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언약자들은 아이러니칼하게도 성공회원들이나 천주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양국의 이같은 합의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히 자국의 이익 때문이었다. 군사적 지원을 받아 승리하게 된 잉글랜드 의회는 3국이 맺은 협약을 더 이상 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철회해 버렸고 스코틀랜드만 그 협약서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한편으로 이같은 협약서가 체결되기 몇 개월 전 잉글랜드 의회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종교 회의를 개최하고 당시 국내의 종교 문제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이때 스코틀랜드에 대표단을<sup>3)</sup> 요청하여 참여케 한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는 교회 이름으로 소집된 회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법정 회의도 아니었다. 의회의 소환으로 모여 의회가 결정하려는 종교적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는 종교 자문 위원회 같은 모임이었다. 그러므로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은 정식 회원의 자격이 아닌 옵저버(observer)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민스터 종교 회의에서 만들 신앙고백서, 대·소 요리문답, 교회 정치 및 공예배 예식서를 작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자들이 스코틀랜드 대표단들이었다. 이 문서들은 의회에서 곧장 인준이 되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에서도 장로교 신앙 신조들로 인준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스코틀랜드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장로교 신앙 안에 민족의 일체감을 유지해 온 스코틀랜드 교회는 잉글랜드 종교 회의에서 작성하여 잉글랜드 의회가 인준한 문서들을 장로교 신앙과 정치 및 예배 행위의 공식 규범으로 삼았다는 아이러니이다.<sup>4)</sup>

잉글랜드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로 의견의 차를 보였던 언약자들은 잉글랜드에서 크롬웰이 점점 독재하게 되자 왕을 추종하는 언약자들이 하밀론 공작의 영도하에 소위 왕당파를 조직하여 1647년에 왕과 비밀리에 한 계약

3) 5명의 목사와 3명의 장로가 총회에서 인준되었으나 4명의 목사와 2명의 장로만 참석하였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Alexander Henderson, Robert Baillie, Samuel Rutherford, George Gillespie(이상 목사), Lord Maitland (Johnston of Warriston (이상 장로)).

4) D. Stevenson, *The Covenanters*, 1988, p. 54.

체결을 한다.<sup>5)</sup> 그러나 아이가일 후작을 중심으로 결속한 급진적인 언약파들은 왕당파가 왕과 맺은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왕을 믿을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왕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후자를 따랐다. 결국 언약자들은 왕의 지지 문제로 인하여 자체 분열을 초래하였다(이들이 왕 문제로 분열된 것은 차알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임에 비해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크롬웰은 잉글랜드인이라는 출신 문제가 작용되었다.) 이처럼 자체 분열은 1638년부터 지탱해 온 교회의 일관성있던 지도력을 상실케 한 것이었다.

한편으로 왕당파가 크롬웰에 의하여 패배를 당하자 아이가일과 그의 지지 세력이 다시 득세하여 소위 교회파(The Kirk Party)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교회가 다시 한번 정치 세력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실 이들이 정치에 가담한 것은 스코틀랜드에 거룩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을 억압해 온 야합적인 대지주들과 귀족들을 몰아내었다. 지속적인 내란과 소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고서 하나님의 은총을 되찾는 길은 사회 구석구석에 물들어 있는 모든 분열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윤리 도덕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국가적 언약과 1643년의 거룩한 협약과 언약을 적대시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공직에서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격한 교회파의 개혁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 2. 후기 언약 운동

크롬웰에 의하여 차알스 1세가 처형당하자 스코틀랜드인들은 화란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던 차알스의 아들을 왕으로 앉힌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차알스 1세가 잉글랜드인에 의하여 처형당하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고, 그래서 왕의 폭군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차알스 2세로 왕직에 즉위시킨 것이다. 왕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 때문이었다. 차알스 2세는 모든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왕위에 오른다. 이 사건은 잉글랜드에서 공화 정치를 강행하고 있는 크롬웰에게 침략의 구실을 주었다. 교회파를 주축으로 한 언약자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크롬웰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던 언약자들의 계획에 금이 간 것이었다. 한편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스코틀랜드인의 단합을 촉구한 결과를 얻어냈

5) 왕은 이 계약(Engagement)에서 언약들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왕당파들은 이 길만이 다시 득세한다고 믿었다.

다. 크롬웰과의 싸움이 단지 종교적인 싸움에서의 패배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서 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잉글랜드와의 싸움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온 계파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의가 모아진 것이었다. 그러나 명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무리들과 불의한 무리가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강조하여 교회적으로는 여전히 분열이 존속되었다. 이때에 타협적이었던 언약자들을 “결심자들(Resolutioners)”이라고 불리웠고, 그 반대자들을 “항거자들(Protesters)”로 불리웠다. 항거자들의 지도자는 당시 스티링(Stirling)에서 목회하던 제임스 거스리(James Guthrie)였다. 이들은 후기 언약 운동에 있어서 순수히 하나님의 진리와 언약을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

항거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 연합군은 크롬웰과의 싸움을 벌이지만 1651년 울스터(Worcester)에서 대패한다. 그 결과 크롬웰이 스코틀랜드까지 통치하게 되었다. 그 후 10년간의 역사는 침묵이었다.

1660년 잉글랜드 내부에서 정치적인 변동으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진다. 차알스 2세가 드디어 두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항거자들로 남았던 언약자들은 1651년에 차알스가 서약한 모든 공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국민들 대다수가 언약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하였고 정치와 종교는 적당히 타협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거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왕과 국민은 왕이 서약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천명하였다. 만일 이것이 이행되지 못하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sup>6)</sup>

왕권의 회복은 교회적으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케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무기력하였고 집약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의회보다 더 강력한 민의를 반영했던 총회는 7년 동안이나 모이지 못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장로교가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더욱이 새로 솟아오르는 신진 세력들 사이에는 장로교가 생소하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 지도자들을 경각시켰고 장로교의 정착을 위한 그들의 야망을 재점검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특사로 파송된 제임스 샤아프(James Sharp)가 1660년 왕으로부터 갖고 온 편지는 문서상으로 장로교를 인정하고 교회 정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sup>7)</sup> 그러나 언약자들 대부분은 왕의 서신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들

6) J. D. Douglas, *Light in the North*(The Pwternoster Press, 1964), p. 78.

7) R. Wodrow, *The History of the Suffering of The Church of Scotland*, 1828. Vol. p. 81.



의 의심은 왕이 감독들을 소환하고 또 왕과 의회가 언약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가시화되었다. 왕은 성직을 수여할 수 있는 각 지역의 유지(patron)를 임명하고, 각 교구마다 이들을 등용하지 않으면 스코틀랜드 교회의 참된 목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현직에서부터 물러나야만 했다. 불행히도 정권과 밀착된 지배 계층들은 장로교가 더 이상 점잖은 신문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다. 교구에서 쫓겨난 목사들에게 힘이 된 것은 그들을 따라 주는 평신도들이었다.

성도들의 지지는 곧장 옥외 집회로 이어졌다. 가정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는 집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에 큰 위협이 되었다. 증가일로에 있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시 한 번 강압 정책을 사용한다. 이때부터 스코틀랜드 역사상, 아니 개신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소위 “살인 시대(Killing Times)”가 1688년 명예 혁명 때까지 계속된 것이다.

이때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로서 정부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일전에 궁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파송받은 제임스 샤아프였다. 그는 철저히 위장한 이중 첩자 노릇을 했고 스스로 배교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왕이 이용한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 심지어 왕도 그를 가리켜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라고 여겼다.<sup>8)</sup>

1662년 왕이 발부한 서신에 의하면 왕이 임명한 샤아프를 포함한 4명의 감독들의 승인이 없이는 법적 성격을 띠는 장로교의 어떤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고 했다. 성공회로 종교의 통합을 이룩하려는 정부의 그같은 조처는 언약자들을 격분케 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목사들을 추방시키는 등 옥외 집회도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추방당한 목사들은 시무했던 교구로부터 20 마일 이내에서는 거주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제정하였다. 그리고 주일날 성공회식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탄압은 무력 충돌을 불가피하게 일으켰다. 추방당한 목사들과 소수의 지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과 농부들이 1660년 11월에 펜틀랜드(Pentland)에 집결하였다. 이들의 반란은 숫자적으로 열세이기는 하나 “스코틀랜드의 교회 역사상 최초의 민중 봉기”<sup>9)</sup>로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이 민중 봉기는 정부의 탄압 정책의 수정을 가져왔다. 탄압은 더 큰 반란을 일으킬 뿐이기 때문에 타협과 회유책으로 선회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회유책은 언약자들 사이에 또 다른 분열을 조장하였다. 1669년 7

8) R. Wodrow, *op. cit.*, Vol. 1, p. 301.

9) D. Stevenson, *op. cit.*, p. 62.

월에 할부된 왕의 종교 자유령(indulgence)은 모든 시민법과 종교법 위에 절대 군주로 군림하는 왕의 신수설을 살짝 비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목사들을 복권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비슷한 자유령은 살인 시대 동안 1672년과 1679년에 더 발부된다. 그 결과로 많은 언약자들이 타협의 길을 걷는다. 그같은 신교 자유령은 사실상 국가와 교회를 동시에 통치하려는 당시 시대적인 제왕들의 야망을 반영한 것들이었다. 심지어 성공회 감독들 일부도 왕의 그같은 처사를 반발하기도 했다. 의회는 곧장 왕의 그같은 선언을 지지해 주었다. 더구나 교회의 내외적 행정 기구 및 모든 정책도 왕에게 종속되며 이같은 왕의 권리는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다.<sup>10)</sup>

교회의 영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언약자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옥외 집회를 계속 주관하면서 그들의 목청을 힘껏 높여 갔다. 스티븐슨은 당시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대민 정책과 사생활 전반에 걸쳐 타락해 버린 사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성도들을 잔인하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사장하였다. 오로지 평신도들만이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에 강력히 대처해 나갔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잔인 무도한 핍박을 받은 것이다.<sup>11)</sup>

스티븐슨의 이같은 평가는 초기의 언약 운동이 지도층에서부터 주도된 것이 라면 지금은 소수의 역량있는 목사들의 지도하에 평신도들에 의하여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1638년 “국가적 언약”은 그 정신이나 범위 및 계획에 있어서 가히 전국민적이었고, 그래서 거의 모든 국민이 서약했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항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언약자들은 그 수에 있어서 소수이며 그들 대부분이 평민들이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 수호는 대중에 의해 주도된다기보다는 소수의 신실한 성도들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들은 왕의 신교 자유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용납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2)</sup>

왜냐하면 신교 자유령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며 장로교 신앙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이 본 신교 자유령은 국가 만능주의를 추대하고 언약자들의 신앙 원리를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10) *Acts of the Parliament of Scotland*, vol. 7, p. 554.

11) D. Stevenson, *op. cu.*, p. 64.

12) J. D. Douglas, *op. cit.*, p. 132.

정부는 1670년에 옥외 집회 설교자는 사형에 처하며 그들을 은닉해 주거나 봉양하는 이들에게는 과중한 벌금을 부과하며 엄벌에 처할 것을 공포하였다.

날로 증가하는 언약자들을 말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1678년에 6천 명이 나 되는 소위 하일랜드 호스트(Highland Host)를 징집하여 옥외 집회가 성행하는 남서부 지역에 투입하여서 닥치는 대로 살육을 일삼았다. 당시의 이들은 거의 야만인들이었다. 복음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천주교적 미신을 섬기고 개화되지 못한 자들로서 언약자들을 살상하는 야만적 행위는 지옥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언약자들도 얌전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자체 방어력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679년과 1680년에 선포한 언약자들의 서약에 그때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전자는 하밀톤 선언서로 왜 우리가 무장해야만 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즉 개혁 교회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수호하며 그리스도의 왕적 권위를 교회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무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스코틀랜드에 참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기 위해서도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의회의 독립과 총회의 자유로운 모임을 회복하자고 했다.<sup>13)</sup>

후자의 산파르 선언문은 전자보다 더 강력한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를 파괴하는 장본인으로 차알스 2세를 참된 교회로부터 면적 출교한다고 했다. 또 그의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과 전쟁을 선포한다는 선전 포고였다. 이 선언문은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스코틀랜드의 참된 교회의 대표자들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선언문이 낭독될 때만 해도 적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나 9년이 흐른 후에는 영국 전체 국민의 의지를 표현한 문서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문서가 1688년 명예 혁명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sup>14)</sup>

이와 같은 선언문은 언약자들이 국가와 왕을 반역하는 행위로서 광신자들이요 반역자들로 몰아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사실 언약자들은 한 번도 정부를 선제 공격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순수히 종교적인 열정을 지닌 자들이었다. 그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구원의 대장수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었다. 처형대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증언들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 보면서 명예 혁명 이후에 스코틀랜드 교회 회고사를 쓴 다니엘 디포우는 말하기를 “카메로니안-후기 언약자들의

13) *Ibid.*, p. 140.

14) *Ibid.*, p. 148.

지도자인 카메론(Cameron) 목사를 따른 언약자들을 가리킴—들은 평화 외에 그 무엇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그 자유를 평안함 가운데서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한 무리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인간이 제정한 온갖 법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소원하였다. 비록 그들은 무자비한 억압과 불의한 자들로 인한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다.<sup>15)</sup> 벌레이(Burleigh) 교수도 그의 교회사책에서 말하기를 “고난 받은 그들은 겸손한 무리들이었고 농민들, 혹은 독립적 사상을 지닌 기술인들이다.”라고 했다<sup>16)</sup> 다시 말해서 언약자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폭력적 항거만을 일삼은 무리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초기의 언약 운동은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농후하였으나 후기의 언약 운동에 가담한 언약자들은 철저한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핍박을 받은 순수한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다. 1680년 이들의 지도자인 언약의 사자로 불리운 리차드 카메론이 죽임을 당한다. 그의 최후의 진술이 언약자들의 종교적 열정을 입증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울라 너희 앞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 슬픔의 나날이 펼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동생에게 당부하기를 “마이클, 최후까지 싸우자. 이 날은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날이다. 이 죽음은 내가 우리 주님의 원수들과 대항하여 싸우다가 죽게 해 달라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 날은 우리가 주께로부터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sup>17)</sup>

폭군인 차알스 2세가 1685년 2월 6일에 사망하자 그의 동생이 제임스 7세(제임스 2세)로 즉위한다. 그는 산파르 선언문에서 천주교인이라 하여 언약자들이 왕위 계승을 반대하고 교회로부터 추방을 선언당한 요크의 공작이었다. 언약자들의 그같은 통찰력은 그가 즉위하자마자 취한 일련의 조치에서 드러난다. 우선 그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 그것은 천주교인인 본인이 천주교를 재건시키려는 첫 단계 정책이었다. 1686년 8월 21일자 친서에서 천주교의 부활을 언급한다. 에딘버리 궁전에 예배당을 복권하고 천주교 미사를 집권케 함으로 종교 개혁 이래 최초로 왕궁에서 미사가 집권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왕궁에 예수회원들을 임명하였고 개신교인들을 국가의 주요 관직에서 서서히 제거시키고 천주교인들로 교체하게 된다. 또한 1687년 왕은 그의 종교 정책에 관한 두 개의 칙령을 선포하는데 첫번째는 장로교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처소로 오직 가정에 국한시켰다. 두 번째는 옥외 집회를 제외한 모든

15) Daniel Defoe, *Memoir of the Church of Scotland James Dewar*, 1844, p. 223.

16) J. H. S. Burleigh, *A Church history of Scotland* (Hope Trust Edinburgh, 1983), p. 251.

17) Patrick Walker, *The Six Saints of the Covenant*, Vol. 1, pp. 231 ff.

종교적 모임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칙령은 카메로니안들을 제외한 모든 기존 교회 목사들에 의하여 수용되었다. 핍박을 받고 있는 언약자들만이 이 땅 위에 개신교를 없애고 천주교를 재건시키려는 왕의 교묘한 정책의 진의를 파악한 것이었다. 그러나 왕의 성급한 종교 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그를 지지한 감독들과 대부분의 성공회 목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88년 11월 5일 윌리엄 오렌지공이 회관으로 부터 귀국하여 장로교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곧 왕위에 오르게 되자 제임스 7세는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정세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급변혁을 가져왔다. 만일 성공회 목사들이 윌리엄을 환영했다라면 스코틀랜드에 성공회가 존속되었을 것이다. 장로교인들에 의한 지지로 윌리엄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를 다시 복원해 준다.

1661년부터 1688년 최후의 순교자인 제임스 렌윅(James Renwick)이 26세의 청년 나이로 순교당하기까지 왕권 신수설을 내세워 강압 정치를 취해 온 제왕들과 그에 동조한 감독 교회 지도자들의 정치적 희생 제물이 된 순교자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18,000여 명이나 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설이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천지를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외침은 죽기까지 믿음을 사수한 언약자들의 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 메아리쳐졌다. 명예 혁명 이후로 장로교만이 유일한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스코틀랜드 성도들은 장로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근접한 정치 제도요, 참된 교회라고 간주하였다. 언약자들은 죽어가는 시대를 향한 살아 있는 진리였다. 그들의 피 없이는 장로교의 존속이 불가능하였다. 이들의 싸움은 장로교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최고 왕적 권위를 세우기 위한 싸움이었다.

다음 기회에는 이들의 신학적 입장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소개하고자 한다.